

‘그린리더! 임실N탄소중립’

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탄소중립 선도

임실군이 지난 4월 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기후 위기 대응 그린리더! 임실N탄소중립’으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447.7천톤) 대비 온실가스 6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정책 기반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43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

유차 저감 장치 부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2월에 창립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의 목표 달성 및 중앙-지방-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추구 행정협의회로 현재 기초지자체 31곳이 회원 도시로 소속돼 있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및 지방분권 공론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수단 및 정책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 지식 공유를 목표로 협의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 및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 18일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모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신규 회원으로 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심 민 군수는 ‘협의회 동참을 계기로 지방정부 주도하에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영희 기자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철저 당부

미이행 불이익 예방 적극 홍보

순창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직불금 관련 교육 이수 등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행 기간은 전년도인 2024년 10월 1

일부터 등록연도인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사전 점검과 주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군은 준수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전북형 공익직불금에 ZERO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 21일에는 순창군 4H연합회의 드론방제 봉사단 연계해 2차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농지 주변의 울

바른 영농폐기물 관리 실천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 스스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현장점검, 안내문 발송, 이장회보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참가자 모집... 9월 16일 진행

순창군이 오는 9월 16일 오전 11시 순창읍 전통시장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상인연합회와 순창전통시장상인회가 주최하고, JTV 전주방송이 주관,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가요제 참가 신청은 8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도 오전 9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가요제는 오전 11시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민 노래사랑을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과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 성공 개최 최선

남원시, 학교·유관기관 등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남원시는 지난 19일부터 2025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6개 분야 40개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사전에 관내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1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박람회에 참석한 관내 청소년 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해를 돌아보고, 2025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연출한 프로그램을 개·폐막행사에 담아낼 예정으로 연습하는 과정과 행사에 참석할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는 주인공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면 최고의 축제 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협조해 주신 시설 관계자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지하 더 다정해 에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특&특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감·소통으로 청렴 도약

남원시,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특&특 토크콘서트 성료

남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지하 더 다정해 에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특&특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렴한 인사제도 구축과 조직 내 신뢰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청렴 인사 디자인’을 주제로 사전 집중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인사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 단순한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시장과 직원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토크콘서트는 △청렴 인사 디자인 추진 결과보고 △시장과의 대담 △현장 질의응답(Q&A) 등으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와 토론은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토크콘서트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청렴 인사운영계획에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제도는 곧 조직 신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는 곧 조직문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세대별 시각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자주 심 심 속에 진행됐으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와 토론은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AR/VR 스토리 콘텐츠 제작 참가자 모집

남원시가 소프트웨어(SW)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3번째 SW/ICT 특강인 ‘AR/VR 스토리 콘텐츠 제작’의 참가자를 오는 9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SW미래채움전북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에는 전북자치도 및 지리산권(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지역민 만 16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신 IT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과정은 AR·VR 기기 활용과 가상환경 이해를 시작으로, VR 가상공간 디자인과 스토리 중심의 AR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SW미래채움전북센터 전화(063-634-8972) 및 이메일(jmi@playcoding.kr)로 하면 된다.

홍보전산과 이영미 과장은 “이번 특강이 최신 ICT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공개 모집

남원시는 오는 25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75세 이상의 홀로 어르신에 대상이며, 진료, 수납, 약 수령, 귀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집 대상 기관은 남원시에 주소 두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법인, 단체로 등록된 기관 중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대상자 접수부터 동행 인력 운영,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남원시는 사업비 지원은 물론, 운영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기관은 통합돌봄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18-26세 여성 군민 대상 HPV 무료 예방접종

순창군은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여성(1998~2006년생)군민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대한민국 여성 암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나로, HPV 예방접종은 여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장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HPV 예방접종 대상(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외에도 소득과 관계 없이 18~26세 여성 군민에게 HPV 예방접종을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참해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